

T-10 TABLE CLINIC

A	성인 전치부 반대교합의 비외과적 교정 치험에 임병철, 김정태, 박희창, 황현식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교정학교실
<p>서양인에 비해 동양인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제 III급 부정교합의 양상은 그 원인이 치아에만 국한된 치성인지, 기능적인 것인지 또는 상하악골간의 골격적 부조화에 의한 것인지를 감별하여야 하며 그 원인에 따라 다양한 치료방법이 시도되어지고 있다.</p> <p>그 원인이 단순히 치성이거나 기능적인 원인인 경우에는 기능성 교정장치나 고정성 교정장치 등을 이용한 비외과적 치료방법이 시도될 수 있으며 골격적인 것이 원인인 경우에는 상악골의 열성장에 의한 것인지 하악골의 과성장에 의한 것인지를 감별하여 성장시기에 따라 성장기인 경우에는 상하악골의 성장양상을 변형시킬 수 있는 악정형장치를 이용한 치료계획을, 성장이 거의 종료되거나 끝난 성인환자에서는 상하악골간의 부조화가 경미한 경우 치아의 이동을 이용한 절충치료를 계획할 수 있으며 악골간의 부조화가 심한 경우에는 외모의 개선을 위해 교정치료와 악교정수술을 병행한 치료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p> <p>본 증례는 전치부 반대교합을 주소로 내원한 성인환자로서 상하악골간의 부조화가 경미하여 상하악치아의 보상적 이동이 심하지 않아 비외과적인 교정치료를 이용하여 전치부 반대교합의 개선과 양호한 교합을 얻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p>	

T-11 TABLE CLINIC

A	상악 제2대구치 발치를 이용한 제II급 부정교합의 치험에 최준규, 이재준, 김왕식, 황현식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교정학교실
<p>상악 제2대구치 발치는 일반적인 소구치 발치에 비해 전치부와 구치부 총생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러한 발치는 비교적 좋은 안모를 가진 제II급 부정교합환자에 있어 좋은 적용종이라 할 수 있다. 이의 효과는 제I대구치와 소구치의 원심이동으로 인한 수직고정의 증가로 deep bite개선에도 도움이 된다.</p> <p>본 증례는 상·하악 전치부 총생을 주소로 내원한 16세 남자 환자로써 제II급 견치와 구치관계, 큰 overbite과 overjet을 보였으나 안모는 그리 심한 상악전돌을 보이지 않는 경우이다. 제2급 부정교합의 원인을 치성으로 진단, 상악구치의 적극적 후방이동이 필요하여 상악 제2대구치를 발치하고 HG를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먼저 median screw를 사용하여 좁은 상악궁을 넓힘과 동시에 bite open을 유도하여 효과적인 치아이동과 브라켓 부착이 용이하도록 하기로 하였다. 이후 고정성장치를 이용하여 하악 전치부의 intrusion을 시행하였으며 Class II elastic을 이용하여 제 I급 견치 및 구치관계와 좋은 교두감합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p>	

T-12 TABLE CLINIC

A	설측교정장치를 이용한 제I급 부정교합의 치험에 최준규, 김왕식, 조진형, 황현식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교정학교실
<p>교정치료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성인 교정 환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심미적인 교정장치의 사용이 요구되고 있다. 브라켓 크기의 소형화, 세라믹 또는 레진 브라켓 등 많은 장치가 개발되고 있지만 순측에 부착해야 하므로 심미성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1970년대부터 개발되어온 설측교정장치가 노출을 꺼려하는 성인환자에서 그 사용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p> <p>본 증례는 상악 전치의 돌출과 전치부 총생을 주소로 내원한 성인환자로서 제I급 구치관계를 보이며 상악과측 측절치는 반대교합양상을 보였다. 상악 전치와 연조직 돌출의 감소를 위하여 상악 제 I 소구치 발치를 계획하였다. 간접부착법으로 브라켓을 부착하고 초기 wire로 0175 Respond를 사용한 후 상악은 016×022 S-S Closing helical loop로, 하악은 016 S-S를 이용한 sliding technique으로 retraction을 시행하였다. 이후 상악에 017×025 TM A를 하악은 017×017 TMA를 사용하여 finishing하였다. 이로써 설측교정치료를 통하여 전치부 총생이 해결되었고 적절한 형태의 악궁을 형성하였으며 양호한 교두감합을 이루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p>	